

어린이도서관 6월 북 큐레이션

책과 함께

여름 속으로 풍덩!

어린이도서관



맷 마이어스 그림책
감자은 출판

서명: 파도가 차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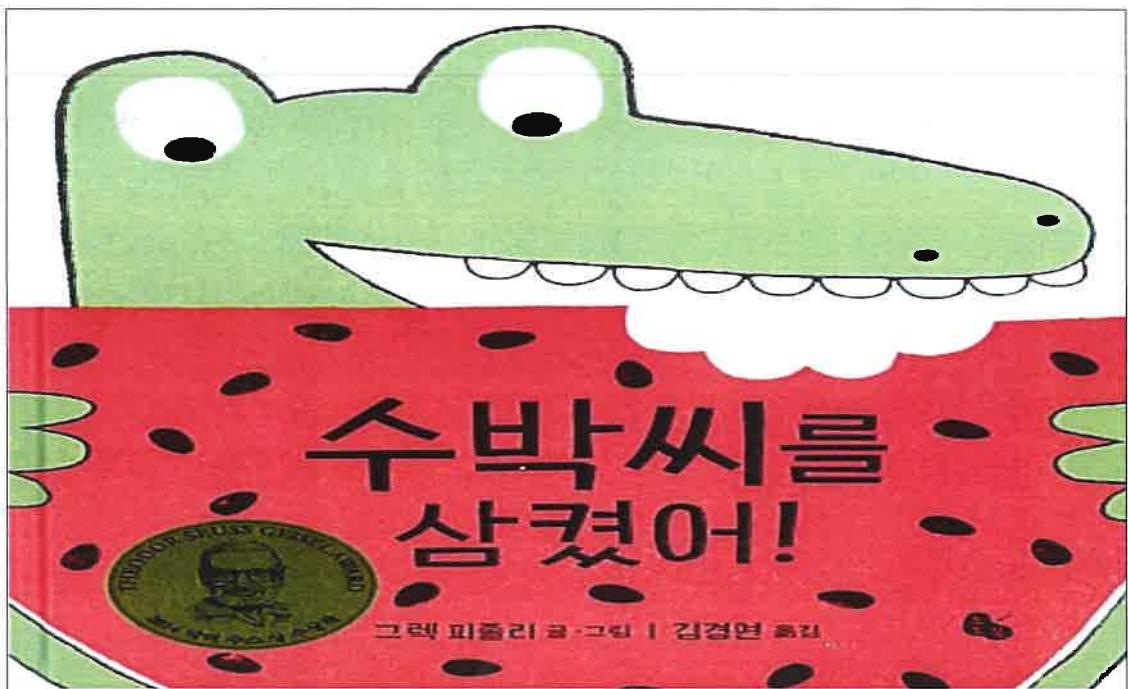
청구기호: B843-마2163호 (1층 병아리실)

저자: 맷 마이어스

발행사항: 서울, 창비, 2020

제이미가 “흠흠.” 콧노래를 부르면 “차르르르르.” 하고 파도를 보내 화답하는 바다. 제이미가 모래로 무언가를 만드느라 골몰하는 동안 바다는 제이미를 채근하지 않고 다정히 곁에 있어 준다. “차르르, 차르르르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만의 기쁨을 찾아 자신의 내면을 유영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출처: 앙라딘



서명: 수박씨를 삼켰어!

청구기호: B843-피946ㅅ (1층 병아리실)

저자: 그렉 피줄리

발행사항: 서울, 토토북, 2014

2014년 닉터수스 상 수상작.

악어를 통해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여 주는 그림책이다. 수박씨를 삼키고 난 후 큰 걱정에 빠지고, 트림과 함께 뱉어 낸 수박씨를 보면 안도하고,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다시 수박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악어의 모습은 여느 아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악어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표정 하나 하나에서 우리 아이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출처: 알라딘



서명: 할머니의 여름휴가 : 더책

청구기호: AB813.8-안456호 (1층 병아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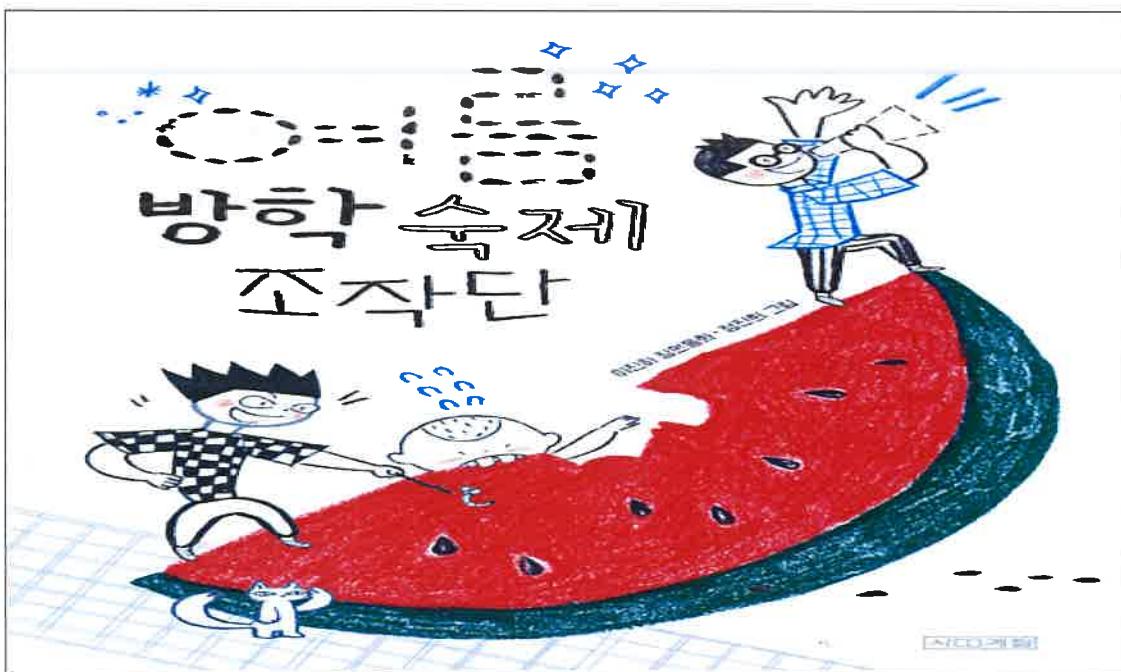
저자: 안녕달

발행사항: 파주, 미디어창비, 2017

어느 여름날, 흘로 사는 할머니에게 손자가 다녀간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바닷소리가 들리는 소라를 선물하고, 윙윙거리는 고장 난 선풍기를 틀고 강아지 메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할머니는 불현듯 소라 속으로 여름휴가를 떠난다.

드넓은 바다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의 청량감과 함께, 몸이 불편한 할머니도 휴가를 보내드리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긴 여운을 남긴다. 한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상상력, <수박 수영장>의 안녕달 작가가 그린 또 하나의 여름 이야기.

-출처: 알라딘



서명: 여름 방학 숙제 조작단

청구기호: C808.9-사141ㅅ-103(2층 꾸려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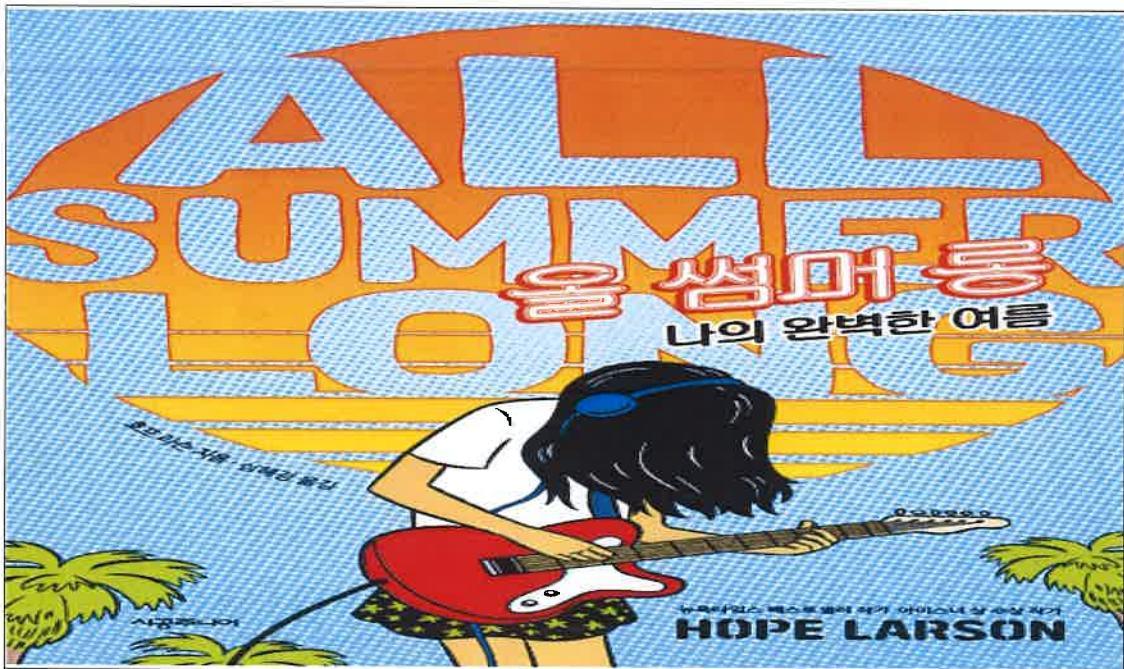
저자: 이진하/정진희

발행사항: 파주, 사계절, 2021

준보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엄마는 숙제를 하라 말한다. 그리고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한다. 방학 숙제 상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는 엄마의 제안! 준보는 이제 최정예 팀을 모아 갖고 싶은 게임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방학은 학업을 놓는 시기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시기이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멀어지는 아이들에게 여름 방학의 기쁨과 우정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건 어떨까.

-출처: 알라딘



서명: 올 썸머 롱 : 나의 완벽한 여름

청구기호: C843-락1820 (2층 꾸려기실)

저자: 호프 라슨

발행사항: 서울, 시공주니어, 2019

2007년 미국 최고 권위 만화상인 아이스너상을 받은 작가 호프 라슨의 작품.

<올 썸머 롱>은 난생처음 단짝 친구 없이 홀로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된 주인공 비나의 일상과 감정을 편안하면서도 내밀하게 보여 준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자신의 꿈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비나의 모습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징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출처: 알라딘